http://dx.doi.org/10.18208/ksdc.2020.26.2.603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국내 선행연구 동향 분석

현은령 · 임한빛* · 김정현**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부교수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시각멀티미디어전공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러닝사이언스학과 인지정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Art Appreciation Education for Visually Impaired Children

Hyun, Eun Ryung · Im, Han Bit* · Kim, Jeong Hyu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pplied Art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Doctor's Course, Dept. of Applied Art, Major in Visual Multimedia,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Learning Science, Major in Cognitive Information Design,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5337).

+Corresponding Author : Hyun, Eun Ryung, pariosa@hanyang.ac.kr

투고일자:20200427, 심사일자:20200503, 게재확정일자:202006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한국디자인문화학회

www.kci.go.kr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Ⅰ.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2. 연구 방법 및 내용
Ⅱ. 이론적 배경
Ⅱ.1. 시각장애아의 특징
Ⅱ.2. 시각장애아와 미술 감상교육
Ⅲ. 시각장애아를 위한 미술 감상교육관련 국내 선행연구 현황
Ⅲ.1. 키워드 검색을 통한 국내 선행연구 동향
Ⅲ.2.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선행연구 내용
Ⅳ. 결론 및 제언
Reference
Endno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in domestic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art appreciation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keyword searches in March, 2020, from the web site of RISS run by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Eight key words were used: 'Visual Impairments in Korean,' 'Arts Education in Korean,' 'Art Education in Korean,' 'Appreciation in Korean,' 'Visual Impairments,' 'Blind Students', 'Art(s)', and 'Appreciation'. The key words were added one by one during the searches. As a result, it'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earlier studies related to visual impairments, but that studies which connected 'Visual Impairments' with 'Arts Education' and 'Art Education' were very scarce. When six papers that were retrieved from the RISS site by adding the key words 'Art Education and Appreciation' to the keyword 'Visual Impairments' and that were most associated with art appreciation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were analyzed in detail,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teaching aids and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was ascertained in all the papers. One thing to note was that it's difficult to find appreciation education activities related to design, though design is considered important in modern society. In the future, an empirical field study will be implemented by developing textbooks and teaching aids, which make it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ur country's art appreciation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that were analyzed in this study, in order to back up the rights of those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to educational excellence and equ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3월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 웹 사이트를 통한 키워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국내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 한 것이다. 한국어의 '시각장애', '예술교육', '미술교육', '감상', 영어의 'Visual Impairment', 'Blind Students', 'Art(s)', 'Appreciation' 총 8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기본 키워드에 키워드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검색결과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관련 선행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시각장애'와 '예술교육', '미술교육'과 상호 연계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RISS 사이트에서 '시각장애' + '미술교육 + 감상' 키워드 조합하여 검색되어진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과 가장 연관 있는 6건의 선행 논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한 결과, 공통적으로 시각장애아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 교재, 교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이 현대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감상교육활동은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교재, 교구, 내용 개발을 통한 현장적용의 실증연구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수월성과 평등성의 권리를 지원하고자 한다.

Key Words

Visually Impaired Children(시각장애아), Art Appreciation Education(미술 감상교육), Preceding Studies(선행연구)

Ⅰ. 서론

Ⅰ.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 아동의 세상에 대한 이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담화능력 함양을 위해 최근 미래사회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미술 감상교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

www.kci.go.kr

아의 감상교육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2015 개정 기본교육과정의 지향 점을 고려할 때 미술 감상교육은 작품의 시대적 변천과 맥락의 이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교육 및 산업계는 융합과 창조에 대한 변화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활동 영역에 제한이 있었던 장애아들의 진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면서 기초능력의 바탕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이 융합 되어 조직화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체계적인 현대미술교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로웬펠드(1970)는 아동의 본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재료에 동기와 주제를 부여하여 아동 스스로 자기표현과 창의성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하는 것이 미술교육의 본질이며, 나아가 이러한 미술교육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사상적 배경이론과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아의 교육적 지원 작업 중의 하나인 3D프린팅 명화 감상 교구제작 및 감상교육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전연구로서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교재, 교구, 내용 개발을 통한 실증 현장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Ⅰ.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를 통한 빈도분석 방법과 관련연구 심층내용 분석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2020년 3월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 웹 사이트를 통한 키워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국내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시각장애', '예술교육', '미술교육', '감상', 영어의 'Visual Impairment', 'Blind Students', 'Art(s)', 'Appreciation' 총 8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기본 키워드에 키워드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검색결과를 산출하였다. 검색연도 설정에 있어서는 검색 시작연도의 설정은 두지 않았으며 검색 연도 끝 연도는 검색일인 2020년 3월에 기준점을 두었다.

또한 관련연구 심층내용 분석을 위해 RISS 사이트에서 '시각장애' + '미술교육 + 감상' 키워드 조합하여 검색되어진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과 가장 연관있는 6건의 선행 논문들을 선택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Ⅱ.1. 시각장애아의 특징

시각장애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재정되어진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밝히고 있는 '법적 정의'와 시야와 시력에 의해 결정되는 '의학적 정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 할 수 있다.[4)] 의학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항목들 중 특히 물체의 모양을 인식하는 '시력'은 장애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데 시력은 실명(Blind)과 저시력(Low-vision)으로 구분 할 수 있다.[5)] 저시력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단계 높은 학습활동에는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실명과 같은 의미인 전맹(Total-blindness) 단계는 생활에 어려움이 큰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6)]

시각장애를 의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정의는 교육적 정의와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교육부에서 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7)]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아를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본 시각장애는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학습매체와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며 촉각과 청각을 주요 학습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8)] 즉 의학적 정의와는 다르게 학업 능력과 연관된 교육환경의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징은 영역별로 신체적, 사회 정서 발달, 인지적 측면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9)] 첫째, 신체적 특징으로 시각장애아동은 운동 발달이 지연되어 공간 내에서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걷거나 중심을 잡는 행동이 어려우며 자극행동으로 신체를 흔들거나 눈을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10)] 또한 시각장애아 중 저시력 상태의 일부 아동은 상황을 조절하며 눈과 손의 협동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11)] 둘째, 사회 정서 발달의 특징으로 시각장애아는 시각장애의 정도, 원인, 시기 등에 의해 다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선천적 증상을 가진 아동과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은 아동은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12)] 또한 비 장애아동이 각기 다른 발달과 수준 차이가 나타나듯이 시각장애아들 중에서도 여러 영향이 작용하여 다양한 수준과 단계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13)] 마지막으로

www.kci.go.kr

인지적 특징으로 시각장애아는 사물을 구분하는 개념 발달 단계에 있어 일반 아동보다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환경적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14]

즉, 시각장애아는 신체적 특성상 발생하는 사회적 교류의 제한으로 사회·정서적 발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Ⅱ.2. 시각장애아와 미술 감상교육

1. 미술 감상교육의 개념과 특징

'미술 감상'이란,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형식과 내용을 관찰하며 수용하는 행위로, 향수, 관조, 감상 등의 측면에서 그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15]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사고를 형성하게 하고 민족 및 전통문화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미술 감상은 학습자에게 타문화 경험을 통하여 편견과 차별적 사고를 초극하고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16] 즉, 미술 감상은 미술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덧붙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미술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행해야하는 '감상'영역의 성취기준을 2015 교육개정안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 작가, 시대적·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비평 관점에 따라 작품을 판단 및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양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17] 이러한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의 미술교과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술 교과에서 감상 교육은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혹은 작가가 속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한 자신과 타인과의 생각을 교류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기에 미술교육에서 감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 필요성

비장애 학생의 경우, 미술 감상 교육 시 상당 부분 시각에 의존한 감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 책, 멀티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거나, 미술관, 박물관 관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시각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아 대상의 미술 감상수업은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특수교육원(2008)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술과 교과지도서에는 시각장애아동의 미술과 지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창작을 위한 상상력은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술과에서는 창의적인 표현을 길러주는 경험을 제공한다. 창작활동에 주요 수단인 손의 정교한 사용 능력을 길러주고, 여러 번의 심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물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상력을 길러주는 질문들을 제공하며, 시각 외의 잔존 감각을 통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을 길러준다. 시각을 통하여 경험할 수 없는 하늘, 그림자 등과 같은 대상들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장애학습자가 현재 알고 잇는 개념들을 토대로 하여 개념화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다."[22] 또한 "시각장애학생의 미술 감상은 대부분 촉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루어진다. 조각 작품을 만지거나 작품묘사와 해설을 듣는 방법으로 감성적 체

Table 1. 초, 중, 고등학교 급별 미술교과 '감상'영역 성취기준 (미술과 교육과정(제2015-74호)

학년		성취기준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며,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과 미술가들이 있음을 알고,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설명하며, 미술 작품을 올바른 태도로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18]
	5,6학년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현대 미술과 비교하면서 미술 작품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19]
중학교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미술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하며, 다양한 방식의 전시를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20]
고등학교(일반)		세계 미술 문화의 이해를 통해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맥락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성과 시대와 지역에 따른 문화 교류를 이해하며, 비평 관점에 근거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21]

www.kci.go.kr

험을 이끌어내는데, 가령 회화 작품 같은 경우 입체프린트를 이용해 작품의 형상을 라인으로 따내어 양각으로 만든 수업자료로 촉각적 감상을 한다."[23]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국정 미술 교과서는 없으며, 동판화를 이용한 동식물 도감 등이 수업 보조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약하다. 그 이유는 전맹 시각장애아의 경우 대상의 크기나 거리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기 어려운데, 동식물 도감의 경우 객체의 크기가 축소 혹은 확대 되어있거나, 대상을 한 측면에서 관찰한 모습을 재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교사 대부분이 양성과정에서 미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교사의 역량과 재량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할 교재, 교구 등의 부재로 인해 다수의 맹학교에서는 표현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24]

하지만, 미술교과에서 감상영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학생의 경우 다양한 교재, 교구, 미디어, 책 등으로 인해 원활히 감상영역의 추구하는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시각장애아의 경우 감상을 접할 수 있는 기본적 수단의 부재로 인해 감상영역의 성취기준에 대한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물리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후속연구인 시각장애아의 담화능력 함양을 위해 미래사회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3D프린터를 이용한 미술 감상교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Ⅲ. 시각장애아를 위한 미술 감상교육관련 국내 선행연구 현황

Ⅲ.1.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행연구 동향

'시각장애아를 위한 미술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은 2020년 3월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 웹 사이트를 통한 키워드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키워드는 국내, 국외 학술논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4가지 키워드를 개괄하여 검색하였다. 한국어 키워드는 '시각장애', '예술교육', '미술교육', '감상'이 사용되었다. 영어 키워드는 'Visual Impairment'(시각장애), 'Blind Students'(시각장애 학생), 'Art(s)'(예술, 미술), 'Appreciation'(감상) 총 4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앞선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추가하여 검색결과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RISS 사이트가 국내 논문 데이터는 비교적 많이 수록되었지만, 국외 논문 데이터가 미미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행 논문 위주로 실시하였다.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ISS 키워드 검색 결과 (2020.03.10.검색기준)

속성	검색 키워드				n
국내	시각장애				4266
	시각장애	+예술교육			35
		+미술교육			56
	시각장애	+예술교육	+미술교육		11
		+예술교육	+감상		6
		+미술교육	+ 감상		7
	시각장애	+예술교육	+ 미술교육	+ 감상	3
국외	visual impairment				4434
	blind students				515
	visual impairment	+art(s)			8
	blind students	+art(s)			5
	visual impairment	+ art(s)	+ appreciation		0
	blind students	+ art(s)	+ appreciation		0

Table 2.에서 정리된 학술논문 키워드 검색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내 학술 논문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시각장애' 검색결과는 4266건이었으나 '예술교육' 혹은 '미술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덧붙여 검색하였을 경우는 35건, 56건으로 검색 결과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3가지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는 10건 내외의 결과가 검색되었다. 마지막으로 4개의 키워드 모두 검색하였을 때는 3건에 불과하였다. 국외 학술 논문의 경우 'visual impairment'로 검색하였을 때 총 4434건으로 가장 많은 검색 결과를 나타내었다. 'blind students'로 검색하였을 때는 약 8분의 1인 515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위의 항목에 'art(s)'를 추가하여 2개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각 8건, 5건, 이어서 'appreciation'을 추가하여 3개의 키워드 검색결과는 0건이 조사되었다. 앞선 결과를 미루어볼 때, 시각장애 관련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장애'와 '예술교육', '미술교육'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어서 '시각장애', '예술교육' 35건에는 어떤 연구가 선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5건 중 3건은 중복된 논문이었기에 Table 3.에서는 3건을 제외한 총 32개의 논문을 표기하였다. '시각장애'와 '예술교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으나 검색결과가 '교육'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영역을 크게 음악, 미술,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영역은 가장 많은 국내 학술 논문 결과가 나온 순으로 표기하였다.

www.kci.go.kr

Table 3. RISS '시각장애' + '예술교육' 키워드 검색 목록 (2020.03.10. 검색기준)

번호	영역	연구자(연도)	제목	학술지, 권(호)
①	음악	조순이(2009)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5]	음악교육연구, 37
②		민경훈(2015)	특수교육에서 오르프 음악지도방법의 수용적 가치[26]	융합예술치료교육, 1(1)
③		이보림(2018)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27]	음악교육연구, 47(1)
④		임형진・박순희(2013)	시각장애인의 음악성취도에 대한 음악흥미와 음악적성 연구[28]	시각장애연구, 29(2)
⑤		서인희・김재웅(2014)	멀티미디어 음향편집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의 작업수행도 평가항목 및 평가표 개발[29]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9(5)
⑥		정지영・이미애(2015)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보유현황과 개선방안[30]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⑦		정지영・이미애(2017)	전자점자악보의 현황에 입각한 DB구축의 필요성 연구[31]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⑧		정은경・김성애(2013)	발달지체 유아 음악교육을 위한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음악활동 분석[32]	시각장애연구, 29(4)
⑨		김화정(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 분야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 분석[33]	음악교수법연구, 19(1)
⑩	미술	최성희(2019)	예술가 교사 엄정순의 시각장애 미술교육 연구[34]	미술교육연구논총, 58
⑪		정서연(2018)	기호학에 토대한 시각장애학생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35]	장애의 재해석, 2018
⑫		류희선・최성희(2019)	담화분석을 통한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의 시각예술창작 경험 탐구: 어려움을 드러내기'의 어려움[36]	美術敎育論叢, 33(3)
⑬		양경희(2008)	장애아를 위한 「통합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37]	종합예술과음악학회지, 2(1)
⑭		이지은・이해균(2018)	시각장애학교 미술수업의 현황과 개선방향[38]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2)
⑮		현은령(2018)	시각장애아의 담화능력 촉진을 위한 3D프린팅 미술 감상 교구 개발[39]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
⑯		정선희・김금희・김세희・유정아・박선희(2017)	장애 관련 우수 그림책의 특성 분석[40]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1)
⑰		권경민(2018)	발달장애 어머니 대상의 <포토툰 수업> 사례 연구[41]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0
⑱	기타	김두영・김호연・김해동・홍재영(2014)	시각중복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교사와 부모의 요구[42]	시각장애연구, 30(4)
⑲		김두영・김호연(2018)	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별 공급 현황 분석[43]	시각장애연구, 34(3)
⑳		김두영(2016)	시각장애성인의 생애주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교육・복지 욕구 분석[44]	시각장애연구, 32(2)
㉑		한경돈・정회준(2012)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지원 콘텐츠 연구[45]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0
㉒		서해린・이상로・김영미(2018)	장애인 대상 국내무용 및 문화예술교육 연구동향 분석[46]	한국무용학회지, 18(2)
㉓		정하나・이영철(2017)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기대효과 및 운영과제[47]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㉔		유기상・이원섭・김종근(2001)	디지털리터러시의 환경에서의 사진 미디어 고찰[48]	한국디자인포럼, 20
㉕		국립특수교육원(2001)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평가[49]	국제세미나 자료집, 8
㉖		김미희・김은경(1987)	도서관 자료로서의 시청각자료의 선정・구입・이용에 관한 연구[50]	도서관 학보, 5
㉗		최병길(2014)	아동의 융합적 창의성 향상을 위한 '문학-미술-과학'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연구[51]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5
㉘		나권수・윤재근(2017)	뇌과학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이해[52]	宗敎敎育學硏究, 55
㉙		김희영(2019)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예술에서 고찰한 혼합현실 콘텐츠의 발전 방안[53]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6
㉚		문범두(2015)	<雲英傳>의 공간적 의미와 비극의 성격[54]	韓民族語文學, 71
㉛		박종소(2010)	「안톤 라이저」에 나타난 불행한 가족상황을 통해서 본 경건주의 신앙의 흔적[55]	獨逸文學, 144
㉜		곽낙현(2016)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와 과제[56]	한국학, 39(1)

첫째, 연구영역 중 '음악'영역에 해당하는 국내 학술 논문은 총 9개이다. 그중 1번에서 3번은 '시각장애'와 '음악교육'이라는 두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학술 논문이었다. 하지만, 3번에서 6번의 경우 '시각장애'와 '음악'이라는 큰 범주에는 부합하나 교육과의 연관성은 다소 떨어졌다. 7번과 8번의 경우'장애'와 '음악'에는 부합하였으나 시각장애와 다소 관련성이 낮았다.

둘째, '미술'영역은 10번부터 17번까지 총 8개의 논문이 기재되었다. 18번과 19번 또한 미술영역을 포함하였으나 다른 과목과의 중복 우려가 있어 2건은 배제하였다. 10번부터 15번까지는 '시각장애'와 '미술교육'이라는 두 키워드에 적절한 학술 논문 결과가 보여

www.kci.go.kr

지고 있다. 16번의 경우 교육과의 연관성이 낮았으며, 17번은 시각장애라는 키워드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마지막, '기타'에는 문학, 무용, 리터러시, 원격교육, 교사교육, 통합교육 등 특정영역으로 분류하기에는 논문의 수가 적은 영역 혹은 키워드와 관련성이 낮은 학술 논문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18번부터 32번까지 총 15건이 수록되었다. 18번부터 24번까지 총 7건은 '시각장애'와 '교육'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5번은 장애라는 큰 범주에는 포함되나 시각장애라는 특성과는 세부요소를 다루는 내용이 부족하였다. 26번은 장애와의 관련성이 없었으며, 27번의 학술 논문은 시각장애와 관련이 없으나 '시각장애'와 '예술교육'이라는 키워드 검색 시 다른 학술 논문과 함께 출력되었다. 28번부터 32번까지 총 5개의 학술 논문은 위의 키워드 중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았으나 검색결과가 도출된 경우였다.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시각장애'와 '예술교육'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검색 시, 국내 학술 논문 검색 결과 상당수가 키워드와 관련성이 떨어짐에도 함께 출력되었다. 32건의 국내 학술 논문의 결과 중 '시각장애', '예술교육' 두 키워드 모두 충족한 학술 논문의 수는 9개에 불과하였다. 시각장애아를 특정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연령과 상관없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미술 감상 논문은 매우 드물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었다. 즉, '시각장애'와 '예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태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III.2.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선행연구 내용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시각장애' + '미술교육 + 감상' 키워드 조합한 결과 7건의 검색결과가 도출되었다. 시각장애아를 위한 연구이지만 시각장애아, 즉 아동이라는 특정 연령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어 '시각장애아'는 검색 키워드에 포함시키기 않았다. 검색된 연구 중 1건은 '미술교육'과는 관련되나 '시각장애' 및 '감상' 키워드에 해당하지 않은 논문이 검색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키워드를 통해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 관련 학술논문을 검색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정서연(2018)은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술의 의미 전달에 토대가 되는 기호학을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발표와 토론의 수업방식으로 구성된 6차시 프로그램 수업을 개발한 후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결과물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술 감상교육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나아가 학생들은 미술사 지식을 습득하고 시각예술 감상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지영, 강보순, 이해균(2011)은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각장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감상교육의 현황과 교사의

Table 4. RISS '시각장애' + '미술교육 + 감상' 키워드 검색 목록 (2020.03.10.검색기준)

연구자(연도)	제 목	키워드
정서연(2018)	기호학에 토대한 시각장애학생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57]	특수장애, 시각장애, 미술감상, 기호학, 특수미술교육, Special disabilities, visual impairment, Art appreciation, Semiotics, Special art education
이지영・강보순・이해균(2011)	시각장애학교 미술감상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및 요구[58]	시각장애학교, 미술감상교육,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Art Impressions Class
박계숙・정진자(2014)	보편적 학습설계에 의한 미술 감상활동이 시각장애학교 초등학생의 감상태도 및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59]	시각장애, 미술 감상활동, 감상태도, 학습행동, Visual impairment, Art appreciation Activity, appreciation Attitude, Learning behavior
현은령(2018)	시각장애아의 담화능력 촉진을 위한 3D프린팅 미술 감상 교구 개발[60]	시각장애아, 담화능력, 3D프린팅, 미술감상교구, Visually Impaired Children, Discourse Competence, 3D Printing, Art-Appreciation Educational Material
이윤희・강보순・이해균(2011)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61]	시각장애학생, 미술교육
이지은・이해균(2018)	시각장애학교 미술수업의 현황과 개선방향[62]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 예술 수업 , 지위 , 발전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Art class , Status, Improvement,
盧在又(1989)	韓國學校美術教育百年史的考察: 近世學校教育制度發祥 으로부터의 史觀比較 近世學校教育制度發祥からの史觀比較[63] (시각장애와 관련도 낮음)	미술교육, 100년사, 역사적 고찰, 교육제도 사관 비교

www.kci.go.kr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시각장애학교의 미술 감상교육은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도구가 부족하여 수업 적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들은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미술관 및 박물관과 같은 직접적 체험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계숙와 정진자(2014)는 미술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한 교구 및 교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에서 제한점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미술교육은 보편적 학습설계를 바탕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들에게 보편적 학습설계에 따른 미술 감상활동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종합적인 수업 태도 및 관찰력, 이해력,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은령(2018)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강한 학습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아 미술 감상교구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개발된 교구를 활용하여 나타나는 기대효과로는 시각장애아의 공간 인지력 및 담화능력 상승, 새로운 형태 탐색 과정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각장애아들에게 창의융합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윤희, 강보순, 이해균(2011)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교육의 개선점을 찾고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시각장애 12개교 중등부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미술교과의 표현 및 감상에 대한 생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방안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체의 개발과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지은, 이해균(2018)의 연구에 따르면 미술교육은 체험, 표현, 감상활동 영역이 종합적으로 신장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 교육과정 미술교과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이 적용되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목표의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RISS 사이트에서 '시각장애' + '미술교육 + 감상' 키워드 조합하여 검색되어진 시각장애아의 미술교육 감상과 연관 있는 6건의 선행 논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한 결과,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점은 시각장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 감상활동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아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 교재, 교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다. 즉 현재 시각장애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업 매체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 아들이 미술교육에서 감상활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아의 미술교육 감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적극적인 후속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최근 교육부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18~22)'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이상 신설, 특수교사 확충,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 지원전담팀 운영,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특수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개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64]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보급되어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창의성 함양 교육과 진로탐색 기회의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시각장애 아의 미술 감상교육은 나와 타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할 수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리터러시 함양의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탐색 결과,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관련 선행연구와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미술 감상수업 교재, 교구,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이 현대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감상 교육관련 연구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시각장애아의 미술 감상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교재, 교구, 내용 개발 및 현장적용의 실증연구 진행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수월성과 평등성의 권리를 지원하고자 한다.

Reference

[1] 곽낙현,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 39(1), 2016.
[2]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www.kci.go.kr

[법률 제16746호], (2019.12.10. 일부개정).
[3] 교육부,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본 통합교육”, 행복한 교육, 426호, 2018.
[4] 권경민, “발달장애 어머니 대상의 <포토툰 수업> 사례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0, 2018.
[5] 김두영, “시각장애성인의 생애주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교육・복지 욕구 분석”, 시각장애연구, 32(2), 2016.
[6] 김두영・김호연, “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별 공급 현황 분석”, 시각장애연구, 34(3), 2018.
[7] 김두영・김호연・김해동・홍재영, “시각중복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교사와 부모의 요구”, 시각장애연구, 30(4), 2014.
[8] 김미희・김은경, “도서관 자료로서의 시청각자료의 선정・구입・이용에 관한 연구”, 도서관 학보, 5, 1987.
[9]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3, 미술과 교육과정.
[10] 김화정,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 분야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9(1), 2018.
[11] 김희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예술에서 고찰한 혼합현실 콘텐츠의 발전 방안”,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6, 2019.
[12] 나권수・윤재근, “뇌과학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이해”, 宗敎敎育學硏究, 55, 2017.
[13] 盧在又, “韓國學校美術敎育百年史的考察”, 論文集, 28(1), 1989.
[14] 류희선・최성희, “담화분석을 통한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의 시각예술창작 경험 탐구: 어려움을 드러내기’의 어려움”, 美術敎育論叢, 33(3), 2019.
[15] 문범두, “<雲英傳>의 공간적 의미와 비극의 성격”, 韓民族語文學, 71, 2015.
[16] 민경훈, “특수교육에서 오르프 음악지도방법의 수용적 가치”, 융합예술치료교육, 1(1), 2015.
[17] 박계숙・정진자. “보편적 학습설계에 의한 미술 감상활동이 시각장애학교 초등학생의 감상태도 및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1), 2014.
[18] 박순희,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2014.
[19] 박종소, “「안톤 라이저」에 나타난 불행한 가족상황을 통해서 본 경건주의 신앙의 흔적”, 獨逸文學, 114, 2010.
[20] 서인희・김재웅. “멀티미디어 음향편집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의 작업수행도 평가항목 및 평가표 개발”,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9(5), 2014.
[21] 서해린・이상로・김영미, “장애인 대상 국내무용 및 문화예술교육 연구동향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18(2), 2018.
[22] 송한나,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의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3] 신소희・김효정, “미술 감상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 연구, 37(5), 2019.
[24] 양경희, “장애아를 위한 통합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2(1), 2008.
[25] 오선경, “시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6] 유기상・이원섭・김종근, “디지털리터러시의 환경에서의 사진 미디어 고찰: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0, 2008.
[27] 이보림,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음악교육연구, 47(1), 2018.
[28] 이윤희・강보순・이해균,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연구, 27(3), 2011.
[29] 이주연, 류지영, 고황경, “학교미술교육 강화를 위한 미술교과서 내용 개선 제안: 동시대 미술, 지역사회 연계 미술(공공미술), 미술 감상・미술관교육의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73), 2020.
[30] 이지영, 강보순, 이해균, “시각장애학교 미술 감상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2011.
[31] 이지은, 이해균, “시각장애학교 미술수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2), 2018.
[32] 임형진, 박순희, “시각장애인의 음악성취도에 대한 음악흥미와 음악적성 연구” 시각장애연구, 29(2), 2013.
[33] 정동영・김봉세・김석진・김영석・김정민・유진수・정윤우・정현우,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2015.
[34] 정서연, 「기호학에 토대한 시각장애학생 미술 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장애의 재해석, 2018.
[35] 정선희・김금희・김세희・박선희, “장애 관련 우수 그림책의 특성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1), 2017.
[36] 정은경・김성애, “발달지체 유아 음악교육을 위한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음악 활동 분석: 3~5세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교사용 지침서 근거”, 시각장애연구, 29(4), 2013.
[37] 정지영・이미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보유현황과 개선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2015.
[38] 정지영・이미애, “전자점자악보의 현황에 입각한 DB구축의 필요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2017.
[39] 정하나・이영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기대효과 및 운영과제”, 특수교육재활과 연구, 56(2), 2017.
[40] 조순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음악교육연구, 37, 2009.
[41] 최병길, “아동의 융합적 창의성 향상을 위한 ‘문학-미술-과학’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연구”, 과학예술포럼, 15, 2014.
[42] 최성희, “예술가 교사 엄정순의 시각장애 미술교육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58, 2019.
[43] 최성희・김정효・강주희・고황경・장경아・조성희・

www.kci.go.kr

김선아・서진아・노현옥,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미술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44]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45] 한경돈・정회준,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지원 콘텐츠 연구”, 과학예술포럼, 10, 2012.
[46] 현은령, “시각장애아동의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위한 미술교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3), 2012.
[47] 현은령, “시각장애아의 담화능력 촉진을 위한 3D프린팅 미술 감상 교구 개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3), 2018.
[48] 현은령, 「어린이 미술교육 아트앤디자인」, 도서출판 일컴, 2012.
[49] 황혜원,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시각장애아동의 표현과 예술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50] Bundschuh Konrad,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평가”,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1.
[51] http://www.kbuwel.or.kr (2020.03.29.)

Endnote

1) 최성희・김정효・강주희・고황경・장경아・조성희・김선아・서진아・노현옥,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미술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133, 2017.
2)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pp.24-28, 2016.
3) 현은령, 「어린이 미술교육 아트앤디자인」, 도서출판 일컴, pp.14-18, 2012.
4) http://www.kbuwel.or.kr (2020.03.29.)
5) 오선경, “시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 송한나,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의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6746호], (2019.12.10. 일부개정).
8) 정동영・김봉세・김석진・김영석・김정민・유진수・정윤우・정현우,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p.125, 2015.
9) 황혜원,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시각장애아동의 표현과예술 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2016.
10) 정동영 외 7인, op.cit., p.132.
11) 박순희,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학지사, 2014.
12) 정동영 외 7인, op.cit., p.134.
13) 황혜원, op.cit., p.9.
14) 박순희, op.cit.
15) 이주연・류지영・고황경, “학교미술교육 강화를 위한 미술 교과서 내용 개선 제안: 동시대 미술, 지역사회 연계 미술(공공미술), 미술 감상・미술관교육의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73, p.251, 2020.
16) 신소희・김효정, “미술 감상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 연구, 37(5), p.235, 2019.
1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3, 미술과 교육과정.
18) Ibid., p.9.
19) Ibid., p.13.
20) Ibid., p.16.
21) Ibid., p.28.
22) 현은령, “시각장애아동의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위한 미술교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3), p.315, 2012.
23) 정서연, 「기호학에 토대한 시각장애학생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장애의 재해석, p.107, 2018.
24) 현은령, “시각장애아의 담화능력 촉진을 위한 3D프린팅 미술 감상 교구 개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3), pp.681-683, 2018.
25) 조순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카펠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음악교육연구, 37, 전체, 2009.
26) 민경훈, “특수교육에서 오르프 음악지도방법의 수용적 가치”, 융합예술치료교육, 1(1), 전체, 2015.
27) 이보림, “시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음악비평수업모형 개발”, 음악교육연구, 47(1), 전체, 2018.
28) 임형진・박순희, “시각장애인의 음악성취도에 대한 음악흥미와 음악적성 연구” 시각장애연구, 29(2), 전체, 2013.
29) 서인희・김재웅. “멀티미디어 음향편집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의 작업수행도 평가항목 및 평가표 개발”,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9(5), 2014.
30) 정지영・이미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보유현황과 개선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2015.
31) 정지영・이미애, “전자점자악보의 현황에 입각한 DB구축의 필요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2017.
32) 정은경・김성애, “발달지체 유아 음악교육을 위한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음악 활동 분석: 3~5세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교사용 지침서 근거”, 시각장애연구, 29(4), 2013.
33) 김화정,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 분야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9(1), 2018.
34) 최성희, “예술가 교사 엄정순의 시각장애 미술교육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58, 2019.
35) 정서연, op.cit.
36) 류희선・최성희, “담화분석을 통한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의 시각예술창작 경험 탐구: 어려움을 드러내기’의 어려움”, 美術敎育論叢, 33(3), 2019.
37) 양경희, “장애아를 위한 「통합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www.kci.go.kr

관한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2(1), 2008.
38) 이지은・이해균, "시각장애학교 미술수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2), 2018.
39) 현은령, "시각장애아의 담화능력 촉진을 위한 3D프린팅 미술 감상 교구 개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3), 2018.
40) 정선희・김금희・김세희・박선희, "장애 관련 우수 그림책의 특성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 (1), 2017.
41) 권경민, "발달장애 어머니 대상의 <포토툰 수업> 사례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0, 전체, 2018.
42) 김두영・김호연・김해동・홍재영, "시각중복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교사와 부모의 요구", 시각장애연구, 30(4), 전체, 2014.
43) 김두영・김호연, "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별 공급 현황 분석", 시각장애연구, 34(3), 전체, 2018.
44) 김두영, "시각장애성인의 생애주기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교육・복지 욕구 분석", 시각장애연구, 32(2), 전체, 2016.
45) 한경돈・정회준,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지원 콘텐츠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지, 10, 전체, 2012.
46) 서해린・이상로・김영미, "장애인 대상 국내무용 및 문화예술교육 연구동향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18(2), 전체, 2018.
47) 정하나・이영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기대효과 및 운영과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전체, 2017.
48) 유기상・이원섭, 김종근, "디지털 리터러시의 환경에서의 사진 미디어 고찰: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사진 리터러시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0, 전체, 2008.
49) Bundschuh Konrad,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평가", 국제세미나 자료집, p.8, 2001.
50) 김미희・김은경, "도서관 자료로서의 시청각자료의 선정・구입・이용에 관한 연구", 도서관 학보, 5, 전체, 1987.
51) 최병길, "아동의 융합적 창의성 향상을 위한 '문학-미술-과학'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연구", 과학예술포럼, 15, 전체, 2014.
52) 나권수・윤재근, "뇌 과학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적 이해", 宗教教育學研究, 55, 전체, 2017.
53) 김희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예술에서 고찰한 혼합현실 콘텐츠의 발전 방안",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6, 전체, 2019.
54) 문범두, "<雲英傳>의 공간적 의미와 비극의 성격", 韓民族語文學, 71, 2015.
55) 박종소, "「안톤 라이저」에 나타난 불행한 가족상황을 통해서 본 경건주의 신앙의 흔적", 獨逸文學, 114, 2010.
56) 곽낙현, "남북한 「무예도보통지」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 39(1), 2016.
57) 정서연, op.cit.
58) 이지영・강보순・이해균, "시각장애학교 미술감상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2011.
59) 박계숙・정진자. "보편적 학습설계에 의한 미술 감상활동이 시각장애학교 초등학생의 감상태도 및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1), 2014.
60) 현은령, op.cit.
61) 이윤희・강보순・이해균,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연구, 27(3), 2011.
62) 이지은・이해균, op.cit.
63) 盧在又, "韓國學校美術教育百年史的考察", 論文集, 28(1), 1989.
64) 교육부,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본 통합교육", 행복한 교육, 426호, pp.32-35, 2018.

www.kci.go.kr